SV Times

2019년 6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SV Times 09호

1. Essay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

**희망의 빛을 비추는 ‘나눔 기획자’**

배우 겸 작가 이광기 편

누구나 한 번쯤 시들어가고 있는 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과연 내게 봄날은 올까? 우리 가정에 다시 예쁜 꽃이 필 수 있을까? 난 시들어가는 꽃이 아닐까’ 절망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시들어버린 꽃 옆에 작은 씨앗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요. 생사의 막간에서 애잔하게 스러지던 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러짐은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던 순간이었습니다.

**막과 막 사이, 경계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씨앗**

지난 해 첫 개인 사진전 ‘막간’에 출품한 작품들은 이런 묵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생화(生花)와 조화(造花)를 한 화병에 담았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극렬한 대비 속에서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을 포착하게 하고, 그 너머에 또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란 걸 예감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처럼 끝과 시작을 연결하는 순환의 고리가 바로 막간입니다. 무대의 막과 막 사이에서 울음을 터뜨리곤 했던 어린 배우 시절, 그리고 아들 석규를 잃은 슬픔으로 깊이 침잠해있던 시절 머물던 공간이 바로 막간이며, 이는 섭리에 순응하는 준비의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진’이라는 매체에 내가 포착한 순간을 담고, 이 감동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은 아프리카의 아이티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늘진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모습,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망울을 담았던 사진을 나중에 보면서 다시 그 감동이 살아나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큰 울림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꿈 공장, 아이티에 학교를 지은 이유**

아이티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이곳에 진도 7.0의 강진이 휩쓸고 가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달려간 그곳에서 석규와 같은 나이의 아이, 세손을 만났습니다.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엉엉 우는 세손을 품에 안았을 땐 내 아이를 다시 안은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나마 석규의 체온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아이티의 많은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밭에서 일을 하게 될 테지요. 언젠가, 자신의 꿈을 도화지에 그려보도록 했을 때 아이티 아이들은 농사짓는 장면이나 오토바이 등을 그렸습니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들뿐이었어요. 꿈이 동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깥세상을 알려주고 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공부, 그리고 학교입니다.

학교를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티자선 미술 경매를 열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세 번의 행사만으로 학교를 지었고, 이후 또 한 동을 지었습니다. 500~600여 명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의 이름은 케빈, 먼저 천국으로 간 석규의 영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아이티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학교 지어주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기아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라는 걸 지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나눔’의 실천, 자선경매와 피스 핀**

아이티에 학교를 지어준 힘은 ‘예술을 통한 나눔’이었습니다. 자선경매를 포함해 10여 년간 미술 전시를 진행했는데,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면서도 기부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티 아이들뿐 아니라 작가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전시를 하면서 떠올린 키워드는 ‘방향’입니다. 후배나 후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재능을 통한 나눔, 공유를 통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선 미술전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공익재단을 설립한 뒤 ‘라이브 자선 경매방송’을 제작해 대중과 신진 작가들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헨리와 함께 경매 방송을 했던 것처럼요. 스튜디오 ‘끼’를 설립한 것도 이런 예술 나눔을 위한 플랫폼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이를 선보일 무대가 없는 작가들을 위한 전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2인 전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하고 강의를 듣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술가들과 함께 희망의 시작점을 뜻하는 ‘피스 핀(Peace Pin)’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

나눔은 작은 일상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공간과 재능을 나누는 일, 행사나 강연 등을 통해 후원과 기부에 동참시키는 일과 같이 소소한 것들뿐인데,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게 나눔은 ‘경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또 다른 삶의 카테고리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인생의 2막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에서 예술작가로, 예술 기획자 및 관련 행사 진행자로, 그리고 나눔 기획자로 활동하며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일이 좋습니다.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2. 소셜 현장 ‘S’가 간다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역사 속으로 떠나는 ‘타임머신’**

**행복얼라이언스 문화역사 체험학습**

따사로운 햇볕 아래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던 지난 4월 말, 다문화 가정 학생과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울 덕수궁 일대로 역사탐방을 떠났습니다. 탐방 코스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평소 서먹서먹해 하던 친구들이 한 팀, 한 마음으로 해설을 듣고, 미션을 수행하고, 퀴즈를 맞히며 스스럼없이 친해진 이곳은 ‘행복얼라이언스’가 마련한 ‘문화역사 체험학습’ 현장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란?

기업·기관·개인의 참여와 자원을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로 지난 2016년 출범했습니다. 2019년에는 40여개 멤버사가 참여해 ▲결식 우려 아동 영양 불균형 해소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권 증진 ▲다문화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까지 총 3개의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다문화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다문화 아동의 방과후 활동 및 진로·체험 교육 기회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 당신과 함께, 변화를 위한 한걸음 - ‘행얼’ 자원봉사’**

오늘은 경기 안산시 다문화 지구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만나 고궁과 전통시장, 역사전시관 등을 함께 체험하는 날입니다. 저는 2호선 시청역에 내려 저와 같은 자원봉사자 15명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시민청’으로 서둘러 들어갔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교육전문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이 역사해설을,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노랑풍선이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지원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모이자 오늘 역사문화 해설사로 활동할 김진형 선생님이 프로그램 취지와 내용,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알려주십니다.

사전점검이 마무리되자, 오늘의 주인공인 62명의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와글와글 밝은 얼굴로 수다를 떨며 걸어옵니다. 우리는 1조부터 15조까지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아이들의 체험을 돕고 안전을 책임지려면 우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아이들 곁을 밀착 마크(?)하며 곧바로 함께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덕수궁,환구단 : 다문화-비(非)다문화아동 협업 미션으로 금세 친해지는 아이들**

역사문화탐방 주제는 ‘조선왕실 문화유산 탐방’입니다. 덕수궁과 광화문광장의 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 전시관, 대한제국의 얼이 서린 환구단, 엽전으로 시장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통인시장 등이 아이들과 함께 탐방할 곳입니다. 저도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이라 조금 설레는 마음인데요.

첫 번째 코스인 덕수궁 대한문을 들어서자 오래된 건물과 아기자기한 정원이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중화문, 정광헌, 함녕전 등 덕수궁 곳곳을 둘러보고 인솔 강사님께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역사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장소를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설사님이 중화문 앞 공터에서 첫 번째 미션을 부여합니다. 역사 퀴즈를 맞추는 조에게 점심 때 통인시장에서 먹을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엽전’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시네요. 웅성거리며 논의를 시작한 아이들 중 순발력과 협동심이 빛난 5조가 엽전 2냥을 ‘득템’합니다. 또 다른 퀴즈에서는 필기를 열심히 하던 3조 학생이 정관헌까지 부리나케 뛰어갔다 와서 정답을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머지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 미션들이었습니다. 특히 3개 국어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기 미션에서는 같은 조 다문화 학생들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이렇게 미션을 함께 수행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다 보니 평소 서먹서먹했던 다문화 학생들과 친구들이 금세 친해지고, 눈빛만 봐도 웃을 만큼 살가워집니다.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즐겁고 뿌듯합니다.

**통인시장 : 한양도성으로 떠나는 타임머신, 샛노란 이층버스**

덕수궁과 환구단이 있었던 자리를 둘러보며 해설을 듣고 열정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층버스,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는 시간이 왔기 때문인데요.

샛노란 이층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탁 트인 광화문 전경을 볼 수 있는 ‘지붕 없는 2층 좌석’을 향해 돌진하는 아이들. 우리는 탑승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질서 있게 버스에 올려 보냅니다. 드디어 출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광화문광장, 광화문과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 앞을 지날 때 아이들이 손을 흔들자 경호원 아저씨들, 교통경찰 아저씨들도 답례를 해줍니다.

이층버스는 마치 조선시대 한양도성으로 가는 타임머신처럼 우리를 통인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옛 한양도성의 저잣거리를 연상시키는 경복궁 옆 통인시장에서 아이들은 엽전을 사용해보는 재미있는 체험을 합니다. 처음 나눠준 엽전 14냥과 미션으로 얻은 엽전이 더해져 아이들의 주머니가 두둑한데요. 시장 안에는 마약김밥, 기름떡볶이, 떡갈비, 순대, 주먹밥, 부침개 등 다양한 음식이 가득해 아이들 뿐 아니라 저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빈 도시락 안에 2냥짜리 음식을 여럿 골라 담은 아이들은 푸짐하고 따뜻한 전통시장 인심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전시관, 국립고궁박물관 : 다문화 이웃들을 꼼꼼하게 살피신 세종대왕을 만나다**

통인시장을 뒤로 한 채, 아이들과 저는 타임머신인 서울시티투어버스를 다시 타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을 찾아갔습니다.광화문 지하에 있는 세종대왕 전시관에서 우리는 세종의 애민정신과 소통의 리더십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조선으로 온 외국인, ‘귀화인’을 배려하며 꼼꼼히 살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다문화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해설사님의 설명에 아이들도 저도 귀를 쫑긋 세웁니다.

**역사골든벨: 아이들의 성장에 영양분이 되어 줄 소중한 체험들**

역사 강연이 끝나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모두가 기대하던 ‘역사골든벨’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역사 탐방과 강연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역사골든벨 퀴즈대회의 문제는 모두 30문제. 수상한 조에게는 숭례문,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을 조립할 수 있는 나노블록이 상품 걸린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조 아이들의 우승을 기원하며 저도 열심히 응원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난 조선시대로의 타임머신 여행 어떠셨나요? 종일 이곳저곳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한민족’이라 불리는 역사 안에도 다문화 가정은 있어 왔고 소통과 화합 속에 함께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매우 새로웠습니다. 또한 역사 탐방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육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S가 만난 체험 학생들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장민우

덕수궁요. 여러 제국 열강들에게 압박을 받던 고종 황제가 거처했던 ‘함녕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엽전으로 음식을 바꿔먹는 점심시간도 재미있었어요. 한 곳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게에서 맛있는 것들을 고르고 엽전으로 교환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박채영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에 놀러오고, 역사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아는 역사 지식도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고요. 저는 세종대왕 전시관이 인상 깊었는데요. 조선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을 융성하게 대접해주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신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지금의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S가 만난 체험 학생들 : 오늘 무엇을 느꼈나요?**

정지현

아동·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장애인,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다문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일반, 다문화 학생들이 따로따로 모이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함께 하고 몸으로 부딪치다 보니 금세 친해지고 눈빛, 몸짓만 봐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신나라

평소 NGO 활동, 교육 분야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행복얼라이언스 자원봉사에 두 번째 참여했는데, 학교 밖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었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복얼라이언스의 다양한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 바로가기.

3. 숨어있는 SV를 찾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법**

‘▲▲기업은 지난 해 경제적 가치 창출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억 원 상당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먼저 시작된 사회적 가치 측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공기업에도 확산되고 있어 그 배경도 함께 관심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는 실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성과로 제시할 경우 사업과 투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과 성과를 홍보한다면 트렌드에 부합하는 ‘착한 기업’으로 한 발자국 가까워지며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처럼 환경 보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활동을 여러 기준을 통해 화폐단위로 수치화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 성격이 모두 다르듯, 회사들도 다양한 사업 환경, 인적 요소, 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 규모, 배경도 기업과 조직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서구권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를 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 혹은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 일찍 도입한 서구권, 유망 사회적 기업 발굴과 투자에 활용**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은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경제가 일찍 발달한 서구권에서 20여년 전부터 개발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발굴과 투자에 활용하여 유망 기업을 키우기 위함이 주 목적인데요. 그에 따라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측정 방법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를 투자 수익률처럼 분석해보거나 전 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평가 해보는 등 임팩트를 객관화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투자 수익률처럼 평가하는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사회성과 투자수익률)**

연구기관 : 사회적기업 투자재단인 REDF와 Jed Emerson | 개발연도 : 2000년 | 개발국 : 미국

SROI는 투자자본수익률을 뜻하는 \*ROI(순이익/투자액)에 Social을 더한 합성어로,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사회적 부가가치’를 투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이 생산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합쳐 정량적으로 측정한 뒤 이를 화폐가치로 객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측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기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ROI의 7가지 원칙 : 이해관계자 참여, 변화의 이해, 가치화, 중요성, 과대 산정 불가, 투명성, 결과검증 | SROI의 분석 6단계 : 범위와 이해관계자 확인, 결과물 매핑, 가치화, 영향력 확정, 산출, 보고, 활용 및 내재화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상대평가 해보는**

**(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 / 임팩트 보고 투자 기준)**

연구기관 : 록펠러재단, 어큐먼펀드,B랩의 초안으로 출범 | 개발연도 : 2008년 | 개발국 : 미국

IRIS는 전 세계 58개국의 463개 사회적 기업과 고객 800만여 명, 그리고 1,900여 개 마이크로파이낸싱기관(MFI)1)이라는 광범위한 과거 데이터를 축적해서 성과평가를 진행합니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며 해당 사회적 기업이 소속된 사업 분야의 평균적, 또는 최선의 성과와 비교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자기 사업 특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8개 분야의 평가지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조직에 공통된 재무성과, 운영성과, 제품성과로 구성되어 있고, 필터 기능을 이용해 만들어진 매트릭스에서 그에 맞게 짜인 질문들에 답을 하고 나면 성과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사회적 투자기관들이 참여해 구축된 평가 시스템이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데이터 수집 파트너들과의 협력해 산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분야가 한정돼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IRIS의 5가지 구성요소 : 조직, 제품/서비스, 재무성과 / 조직 운영에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 / 제품의 사회적 가치

IRIS의 8가지 분야 : 크로스섹터, 농업,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의료, 주택/공공시설, 물

**임팩트 투자 자금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는**

**(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 글로벌 사회성과 투자 평가 시스템)**

연구기관 : B-코퍼레이션 연구소 B-Lab | 개발연도 : 2012년 | 개발국 : 미국

GIIRS 평가 신청 → 평가 질문 60개 → 심사관의 검토 및 평가로 산출

GIIRS는 IRIS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임팩트 투자 평가 시스템입니다. 신용평가 시스템과 같이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하여 투자자와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GIIRS로 인해 임팩트 투자 기관들은 투자 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기업이 어떤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사를 위한 사회, 환경적 임팩트 평가 도구’라는 점에서 발표 당시 주목받기도 했지요.

투자 기업과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환경, 이해관계자(공급자, 구매자, 소비자, 주주 등)를 고려한 임팩트 평가 체계이기에, 불확실한 측정 기준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던 임팩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적합성을 증명해서 다양한 임팩트 자금들이 매칭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사 GIIRS 평가 :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해 두었는지(Impact Target), 기업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임팩트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Investment Criteria), 다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Portfolio Management) 외60개 질문

피투자사 GIIRS 평가 : B-Corp2) 인증평가(BIA),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지에 관한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평가, (Overall Impact Business Model) 기업의 운영 및 행정 체계,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등을 확인하는 운영 평가(Overall Operations Ratings)

해외에는 그밖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이 존재합니다.

△ 기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조직 학습 등에 대해 일관된 측정 수단을 통해 균형 있게 측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서로의 인과 관계까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SBSC(Social Balanced Score card)

△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레임워크 OASES(Outcome Assessment for Social Enterprise)

△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과 고객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 등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B-Corp 인증평가

△ 고객을 상대로 비교적 빠르고 손쉽게 양질의 임팩트 지표와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린 데이터(Lean DataSM)3)

△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본, 공정한 기업 활동의 기준을 수립하고 저스트 지수(Just Index)4)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방식, 저스트 캐피탈(Just Capital) 등 다양한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용어해설

1) 마이크로파이낸싱: Micro(아주 작은) + finance(신용)이 합쳐진 말로 일반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금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빈곤 완화와 사업 수익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무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2) B-Corp: 기업의 이윤만 좇지 않고 소비자와 직원, 지역사회, 환경 등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글로벌 인증.

3) 린 데이터(Lean Data): 기업의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이 목적하는 임팩트 지표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수집하는 방식.

4) 저스트 지수(Just Index)와 저스트 캐피탈(Just Capital): 저스트 지수는 저스트 캐피탈(Just Capital)이 만든 평가 지표로 ‘공정한 자본’을 기조로 삼는다.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본, 공정한 기업 활동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시행한다.

**국내 측정 방법도 ‘본격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폭넓게 확산되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성과로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권과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 외에도 일반 기업과 공기업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못지않게 높은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연이어 등장하는 것은 물론, 발전 속도와 측정에 대한 실험 방법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 자가진단 KIT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7년 ‘SE 자가진단 KIT’를 통해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SVI) 온라인 툴을 오픈했습니다. SVI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7대 원칙 등 관련법령과 각종 학계 자료를 참고했으며 크게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등을 측정합니다. SVI는 3개 관점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각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 등급으로 산출하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2) SK그룹이 사회적 기업, 학계, 유관 기관 등과 함께 개발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국내 최초 시도입니다. 2015년부터 측정 방법론을 사회적 기업들에 적용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측정 도구로서, SK그룹은 올해 188개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에 비례해서 현금 인센티브 87억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성과 자가 진단 툴

3) 한국비영리학회와 한국가이드스타가 개발한 사회적 가치 성과 자가 진단 툴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 지표 문항은 크게 인적 자원 영향, 기업 가치 변화 영향, 사회 변화 영향 3가지 등인데요. 1)인적 자원 영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근로자 또는 서비스 대상자에 미친 영향 2)기업 가치 변화 영향은 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가치 공유 활동 3)사회 변화 영향은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의미합니다. 가이드스타(공익법인)는 새로 개발된 지표를 웹 사이트에 게재해 공익분야 단체들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진단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더 나은 기업의 역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을 더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주된 역할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시도와 발전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또한 그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부상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왜? 어떻게?(이로운넷, 2019. 5. 2.)2018년 사회적 가치 지표(SVI) 활용 매뉴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사회적 성과 평가 방법론의 글로벌 발전 동향 연구(임팩트스퀘어, 2013. 11.)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SK사회적기업가센터·MYSC, 2015)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4. Trend & Review

**Trend&Review :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례가 가득한 책 BEST3**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 변화’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약 7천680만 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고, ‘social change’로 검색을 하면 49억 3천만 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억여 개 문서 중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건 몇 개나 될까요? 통찰과 지혜를 주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할 때, 책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잘 선별된 책은 마치 ‘1억 광년을 순식간에 지나는 우주선’처럼 가치 있는 지식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발견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례>가 가득한 세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Chapter 1**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사회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 청년들의 고군분투기**

젊은 소셜벤처에게 묻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소셜벤처 기업인 여섯 사람과 선배 멘토의 인터뷰를 담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성공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장 중인 기업가들의 이야기, 즉 ‘현재진행형’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기회를 확대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키운다.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항상 답이 되지 않는다...(중략)...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하고자 노력한 것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힘이었다. 기업가에게 성장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고, 한번 성장한 이후 후퇴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럼에도 그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그게 오히려 머시주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56쪽)

저자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와 이새롬 씨가 2년간 초기·중기·성숙기 단계에 있는 6명의 젊은 소셜벤처 리더들을 만난 뒤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드론 데이터 전문 기업 ‘엔젤스윙’ 박원녕 대표 ▲착즙주스 전문 기업 ‘머시주스’의 문정한 대표 ▲예술 공유 서비스 기업 ‘위누’의 허미호 대표 ▲패션 진로 교육 기업 ‘프로젝트 비욘드’의 김경환 대표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 기업 ‘오파테크’의 김항석 이사 ▲고용형 사회혁신기업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어떤 목표와 의지로 창업을 했는지,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나가고 있는지는 물론, 그들 앞에 주어진 과제 또한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거나 막 창업한 이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하는 용기를 줍니다. 기술, 마케팅, 현장전문성, 아이디어 등 다양한 경쟁력을 무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라고 할까요? 게다가 창업자의 ‘선한 의지’가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었는지 과장없이 보여주는 이 책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개념과 팁 등도 담겨 있어 소셜 이노베이터들을 위한 사려 깊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소셜벤처가 투자자를 만나고 급격한 성장기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대처 방법 등도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책정보 : 이새롬 도현명 지음 / 남해의봄날 / 236쪽 / 1만5000원

**Chapter 2**

**지금 이 순간, 사회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

**매거진 ‘Social Innovators Table’ vol.7**

‘Social Innovators Table(이하 SIT)’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며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이름이자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매거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매회 새로운 사회문제를 주제를 설정하여 이와 관련한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SIT. 이 책은 그 일곱 번째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7일에 진행된 Social Innovators Table 일곱 번째 모임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부 문화의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중략)...<매거진 SIT> 7호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 현금·현물 기부의 투명성 제고, 커뮤니티 기반의 후원자 관리 등 변화하는 기부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여한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경험과 제언이 기부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환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7쪽)

SIT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마주하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고 기업가, 투자자,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활동가들을 초청한 뒤, 관련 분야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다 함께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그리고 각각의 행사에서 진행된 발표, 대담, 네트워킹 시간에 나온 이야기를 매거진으로 엮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역량과 치열한 고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SIT 7호는 올해 3월에 진행된 ‘일상 속 기부 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됐습니다.쉽고 즐거운 일상 속 ‘참여’가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든다는 건데요.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 현금·현물 기부의 투명성 제고, 커뮤니티 기반의 후원자 관리 등 변화하는 기부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목소리로 나눔을 실천하는 오픈 더빙 솔루션 ‘헬렌’을 개발한 이은영 유니크굿컴퍼니 공동대표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기부 플랫폼 ‘프리즈밍’의 김현욱 공동대표의 새로운 시도를 포함,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발표와 대담을 정리했으며, 평범한 나의 하루가 변화의 씨앗이 되는 일상 속 기부와 나눔의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SIT 매거진 발행 list - vol1 기술 기반 혁신을 이룬 소셜 벤처 | vol2 좋은 지원 파트너를 만나는 방법 | vol3 청년 Social Innovator를 성장시키는 협력 | vol4 함께 되살리는 도시와 지역 | vol5 청년 자립을 위한 공감과 협동 | vol6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 vol7 일상 속 기부 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

정기구독 신청 PDF 보러가기

사회변화, 사회적 경제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인 자본이나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사회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다면? Social Innovators Table 7호를 다운로드 해서 보세요. 또한 관심사에 맞는 주제의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1~6호까지 함께 보세요. 당신의 열정에 불을 지필 새로운 세계가 그 안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지음 / 62쪽/ 무료 (sit.skhappiness.org/others/list 다운로드)

**Chapter 3**

**소수의 사려 깊고 헌신적인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젊은 당신은 체인지메이커입니까?**

앞의 책보다 좀 더 완숙한 경험과 전문성, 기반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즉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책인데요. 사회 변화에 관심이 있는 20여 명의 체인지메이커들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로 국내외에 이름을 알린 체인지메이커들 뒤에 숨은 도전과 좌절, 의지, 그리고 성공 요인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지 마세요. 어느 분야에서든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기여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제가 나타나요. 그때 그 기회를 잡으면 돼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상에 필요한 자원을 몸으로 흡수하고 때를 기다렸다 하면 돼요.(114쪽)

먼저 ‘체인지메이커’로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제작자인 구범준 대표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교실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 ▲한국의 국제화를 주제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크레이그 라투슈 등의 인터뷰를,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체인지메이커’로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한 재단법인 해피빈의 권혁일 이사장 ▲임팩트 투자자인 브라이언 트렐스타드와 사샤 딧터 ▲소셜벤처의 탄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임팩트스퀘어의 김민수 이사 ▲파타고니아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릭 리지웨이 ▲체인지메이커들의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해주는 임성택 변호사 등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은 소셜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거나 비(非)전업으로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유명인들과의 대화를 응축해 놓은 만큼 글귀 하나하나에 임팩트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체인지메이커가 많아진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 혁신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꼭 필요한 책입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돼야 하는 시대라는 점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책. 책을 덮는 순간 책 속 한 인터뷰이의 말처럼 강한 느낌표 하나가 떠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걸려들었구나. 나는 이걸 해야겠구나.’

정경선, 루트임팩트 지음 / 김영사 펴냄 / 376쪽/ 1만4800원

5. The Social Innovators

**‘폐지’ 위에 그리는 어르신들의 행복 일자리**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1

5천 원.

밥 한 끼 값으로도 모자란 이 돈을

폐지의 무게로 환산하면 100kg입니다.

75세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부지런히 주워야

겨우 채울 수 있는 무게입니다.

--------------------------------------------------------------------------2

대안학교 교사 기우진 씨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 위를 아슬아슬하게 오르는 어르신들을

늘 눈여겨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구조의 문제일까?’

--------------------------------------------------------------------------3

“발품을 팔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 실태를 알아봤어요.

개인의 문제라면 제 월급을 떼어서라도

도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소외, 제지 회사의 담합 등이

어르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죠.”

--------------------------------------------------------------------------4

힘겹던 시절 책과 옷가지들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 써 본 적이 있던 기우진 교사는

종이나눔운동본부를 만든 뒤

학교 등에서 폐지를 기부받아 판매한 돈으로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5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도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

폐지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폐지 값을 제대로 쳐드리고 싶었어요.

비즈니스, 즉 사회적 경제로 눈을 돌렸죠.

폐지로 뭔가를 만들자. 만들어서 비싸게 팔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6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페이퍼 캔버스아트 작품을 판매하는

‘러블리페이퍼’입니다.

‘Love’와 Recycle의 ‘Re’가 합쳐진 이름이죠.

--------------------------------------------------------------------------7

기술도 설비도 자본도 없던 기우진 교사는

고민 끝에 한 만화 작가의 아이디어를 접한 뒤

2016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8

그 다음,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줄

재능기부 작가들을 SNS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4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9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자

기우진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됐다. 이제 그림을 팔기만 하면 된다.”

--------------------------------------------------------------------------10

기우진 대표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께 시중가의 20배인

㎏당 1000원에 폐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는 1년간 진행됐으며, 수익금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회적 기업이 된 러블리페이퍼.

--------------------------------------------------------------------------10

현재는 210여 명의 재능기부 작가가

한 사람당 연간 24개의 캔버스아트 작품을 만들고

정기구독자 250명이 이 작품들을 받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11

또한, 매출의 상당 부분은 교육사업에서 나옵니다.

페이퍼 캔버스 DIY 키트를 이용해

학교나 기업 등과 페이퍼캔버스를 제작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2

러블리페이퍼는 어르신들의 폐지를 사는 것 외에,

고령 어르신들께 각종 물품과 여가활동도 지원합니다.

또한, 이런 활동이 전국에 알려진 탓에 이젠

뜻있는 기업에서 보내오는 각종 물품을 전달하는

어르신 지원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3

기우진 대표는 아직 한참을 더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꼐 일자리를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자체 노인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6월에 폐지 줍는 어르신 10명을 생산직에 고용하고

폐지 매입 어르신의 숫자도 늘리려고 합니다.”

--------------------------------------------------------------------------14

지난 2월 말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기우진 대표.

그간, 자신은 대안학교 교사 월급으로 생활하면서도

두 가지 일을 병행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찾아다니고, 엮어주는 것뿐이에요.”

--------------------------------------------------------------------------15

기우진 대표는

‘관점을 바꿔, 관심 가는 이웃을 찾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이 ‘3관왕’이 러블리페이퍼의 여정인 것이죠.

--------------------------------------------------------------------------16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폐지를 줍고 그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러블리페이퍼의 오늘은 여전히 바쁠 것입니다.

--------------------------------------------------------------------------17

6. SV, 세계는 지금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사례 편**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부적응 등의 문제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단일민족’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우리나라는 서구권에 비해 훨씬 더 요원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한 정책의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주민의 적응’ 위주의 다문화 정책에서 ‘자녀 세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해외의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WEDEN**

**체계적인 부모 나라 언어 교육, 국가 경쟁력이 되다**

인구 1천만 명 가운데 2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민자 출신인 스웨덴은 현지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의 모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태생이라면 그 부모의 모국어를 무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고, 1995년부터는 부모나 자녀가 원할 경우 방과 후 과정으로 모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이주민 자녀가 부모 나라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스웨덴 안에서 구사되는 언어의 수는 무려 2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를 제도화한 이유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경우 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부모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부모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하교 내 다문화의 이해도나 포용성이 높아져 학교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주민 자녀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주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어 외에도 스웨덴은 기초단체마다 다문화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부모와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이주민 가정은 스웨덴 사회를 배우고, 일반인들은 다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온라인에서 올바른 인식 유도하고, 외국인에게 적대성향을 가진 극우단체의 활동에 대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TAIWAN**

**신주민 가정과 일반 가정 간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 마련**

산업 노동자의 이주가 많은 구미 국가와 달리 대만은 결혼을 위한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들을 ‘신주민’(공식 명칭은 外籍及大陸配偶 외국 국적 및 중국 대륙 배우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신주민 자녀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해 2030년이 되면 25세 이상 청장년 중 신주민의 자녀가 약 1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대만은 2012년부터 전국신주민횃불계획(全國新住民火炬計畫, 이하 횃불계획)이라는 다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횃불계획은 이주민 자녀와 그 가족, 일반인 학생과 그 가족이 학교에서 만남의 장을 만든 뒤 자연스러운 참여와 교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흡수’ 또는 ‘동화’의 방식이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의 교류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온 것이 특징입니다.

횃불계획 아래 대만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가운데 신주민의 자녀수가 100명을 넘거나 10% 이상인 학교를 ‘횃불계획 중점학교’로 선정한 뒤 모국어 학습과 가정 방문, 다문화강좌, 체험캠프 등 십여 가지 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8개 사업은 일반주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횃불계획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전체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울러 기존 교사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맡지 않고 학교별로 전담 인력을 채용토록 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도 시사할만합니다.

**동화주의’보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필요**

사실, 앞서 예로 든 나라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가 형성된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다문화 교육 제도를 정착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기존 문화에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이민자 자녀 스스로가 자신이 지닌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하면서 각 문화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교육이 이뤄지고 습니다.

독일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분리하기보다 ‘사회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다른 소외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통합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공화주의 원칙’에 근거해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기반으로 다양성보다는 균등한 사회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시민으로 길러 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여건마다, 이주민 특성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지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 및 성인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늘림으로써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동화주의 교육보다는 상호 이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참고자료해

외국민통합사례연구(국민대통합위원회, 2016.11.)

다문화 교육 관련 특별기획(충남일보, 2018.7.)

‘다문화교육 10년, 새방향찾기’ 기획(제주매일, 2018.12.)

‘다문화 교육과 국가경쟁력’ (여성신문, 2017.12.6.)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웹진 5월호

7. Social. Talk Talk

**Social Value Connect 2019**

**행복얼라이언스 ,**

**SK프로보노 세션**

**성공적 진행**

‘사회적 가치’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첫 민간축제 <Social Value Connect 2019>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SK프로보노와 행복얼라이언스도 각각 세션을 진행하며 중요한 파트로 참여했는데요, SK프로보노와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한 세션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K프로보노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복얼라이언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동 전통 리조트**

**구름에, 그림책 전문**

**공간 오픈**

‘구름에’가 그림책 전문 공간 ‘구름에 온(Gurume On)’을 오픈했습니다. 어른도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품 1000여권을 엄선하여 공간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살아있는 책’ 에서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팝업북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름에’가 선사할 자연, 책, 여행,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이 기대됩니다!

구름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복얼라이언스 장애 아동 삶의 질 향상 캠페인**

**브랜드필름 공개**

행복얼라이언스는 성장기 어린이의 몸에 맞는 휠체어와 전동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아동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휠체어를 타는 열한 살 지민이와 엄마의 행복 이야기를 통해 행복얼라이언스가 만드는 즐거운 사회변화를 확인하세요!

행복얼라이언스 유튜브 바로가기

**SUNNY 사회적기업**

**서포터즈**

**성과공유워크숍 개최**

대학생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학생들 간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UNNY 사회적기업 서포터즈의 성과공유워크숍이 지난 6월 8일 열렸습니다. 소셜벤처의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SUNNY 페이스북 바로가기

**약자를 응원하는**

**사회혁신 스타트업**

**‘언더독스’**

사회혁신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언더독스’는 대상, 기간, 목적에 따라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사회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는데요, 현재 SK E&S와 함께 3월부터 군산에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SK와 다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언더독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미디어SK 페이지 바로가기